



여수어민들, 일본 원전수 방출 결정 규탄 해상시위

19일 여수시 국동항에서 펼쳐진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일본 규탄 대회후 여수 어민들이 연-근해 어선 150여척을 동원해 오염수 방출 반대 해상퍼레이드를 전개하고 있다.

## ‘벌써부터 군수 선거 혼탁’ 선관위 과태료 부과

### 고흥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 위법

내년 6월1일 실시하는 전남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뒤 위법하게 공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한 모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고흥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

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여선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흥=김택영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SRF 법원 판결 존중 난방공사 조기에 적절한 조치 취해주길”

### ‘패소’ 나주시, 항소 검토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SRF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RF 관련 질문이 나올 때면 “자칫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껴오던 이 시장은 이날 역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민감한 환경 이슈인데다 막대한 손실 보존 문제가 얽혀 있고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시민단체와 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다자 간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이 첨예하게 엮힌 점과 미래 환경 정책과 잇나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검토 중인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총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



관과 공동주력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 SRF 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2009년 3월 혁신도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협력사 체결에 불참한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제작한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난방공사가 결정됐고 이를 두고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RF발전=광주쓰레기 소각’으로 규정,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정부정책이기도 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SRF 폐쇄와 100% LNG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윤희기자

## 광주 고3, 전국 평균점보다 우수

### 전국학력평가 성적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형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의 학력평가 실체점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학력평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체제를 적용한 첫 시험이다. 문·이과 구분 폐지, 국어·수학 선택 과목 도입, 사회·과학 탐구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 응시 등이 반영됐다.

광주 고3학생들의 국어 평균 합계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58.58점)보다 높았다.

국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은 61.83점, ‘언어와 매체’는 65.66점을 기록했다. 각각 전국 평균 58.13점과 59.85점보다 높았다.

수학 평균 합계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38.07점)을 웃돌았다.

수학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32.92점, ‘미적분’ 52.40점, ‘기하’ 48.62점으로 각각 전국 평균

### 국어·수학 평균합계점수, 전국 평균 3점가량 웃돌아 올 수능과 같은 체제 적용 첫 시험...체계적 준비 당부

30.54점, 50.58점, 44.14점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 600점 만점을 기준(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 제외)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인문계열 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영어영문학과·경영학부는 365~376점으로 관측됐다.

전남대 자연계열은 의예과 435점, 의예과(지역) 434점, 치의학과(지역 포함) 433점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부는 431점, 수의예과 424점, 전기공학과·수학교육과·기계공학부는 393~411점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의예과 434점, 의예과(지역) 433점, 치의예과(지역 포함) 432점,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과는 42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지원 가능 표준점수는 전남대·조선대 2022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정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서 적용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등급의 활용 방법(비율·가산점·감점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

시교육청은 대입 변화에 대비,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선보인다.

▲전학지도자료집 ‘빛고를 대로’ 시리즈(1~7권) 보급 ▲고교 현장 맞춤형 대입지원컨설팅 ‘빛고를 플랫폼’ 운영 ▲대입 대비 광주진로 진학박람회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수시 집중 상담(8월 중)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평가는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참고 자료”라며 “6·9월 수능모의 평가와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 제10회 보성세계차(茶)엑스포

### 2022 10th BOSEONG WORLD TEA EXPO

·기간 2022. 4. 29. ~ 2022. 5. 5.

·장소 보성군 일원

보성세계차(茶)엑스포가 2022년에는 제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

보성군

농림축산식품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보성군농업기술센터